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 <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고 인 환*

차 례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강영숙의 <리나>에 나타난 탈북자 문학의 새로운 양상을 고찰하였다. 두 작품은 탈북자의 삶을 다루면서 이를 남북의 문제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관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주로 이들의 최종 목적지로 '남한'을 상징하였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는 것이 작품의 지향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동일성에 기반한 흡수의 논리에 빠질 수 있는데, 탈북자 문제의 형상화가 남과 북의 특수성에 바탕한 분단 소설의 영역으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우리 문학에 중요한 쟁점

*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으로 부상된 ‘탈국경의 상상력’과 관련하여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을 고찰하였다.

탈북자로 설정된 바리와 리나의 이동 경로는 분단현실이 매개된 한반도에서 근대 사회의 형성과정이 함축된 한반도 너머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디아스포라들의 이주와 연대의 상상력을 드러내고 있다. <바리데기>는 근대 이전의 전통 서사 양식의 차용을 통해 특수와 보편, 한반도와 그 너머, 근대와 탈근대를 매개하는 관계의 사유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리나>는 탈근대적 서사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국경의 상상력’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 서사 양식과 탈근대적 성향의 서사는 ‘전지구적 자본의 이동과 편재’에 응전하는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구조화하는 주요한 형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바리데기>는 하위주체들이 구성하는 공통의 체험을, <리나>는 하나로 수렴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들의 다층적 정체성을 포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은 근대적 주체의 고난의 여정과 탈근대적 주체의 유목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의 안과 밖을 동시에 심문한다. 부정적 근대와 맞선 근대주의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이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인 셈이다. <바리데기>는 피억압 디아스포라들의 구체적 삶을 ‘동정과 연민’(남을 위한 눈물 혹은 생명수)이라는 근대의 동일성 담론(바리설화)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가치를 모색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리나>에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탈주하려는 탈근대적 주체의 욕망이 전경화됨으로써, 부정적 근대에 맞선 근대적 가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바리데기>에는 근대적 주체의 정체성을 심문하는 탈근대적 ‘차이의 연대’가, <리나>에는 탈북 디아스포라의 유목적 모험을 근대적 일상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탈북자, 디아스포라, 탈국경의 상상력, 신자유주의, 분단문학, 국경, 연대, 근대, 탈근대

I. 서론

최근 들어 한국 사회 내부에는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여성, 그리고 그들의 2세인 코시안 등 주변화된 비주류 소수자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는 탈북자 또한 주목을 요하는 소수자 집단이다. 탈북자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와 구별되지만, 남한사회에 적응함에 있어 북한인도 남한인도 아닌 무국적의 이주민 취급을 받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¹⁾

탈북자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탈북자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초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는 탈북자의 규모를 10만 여명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도 중국 내의 탈북자의 규모를 대략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²⁾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난민이나 망명자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국내 탈북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탈북자 정착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 탈북자의 생활 기반이 취약하며 문화적 차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로 사회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³⁾

1) 전영평·장입숙, 「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슈확산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243쪽 참조.

2) 최대석·조영주,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제33집 2호, 2008, 97쪽 참조.

탈북자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그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탈북자의 삶을 다룬 텍스트들은 1990년대 이후 상당한 양이 축적되었다.⁴⁾

탈북자 문제의 문학적 형상화가 지닌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체제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정체성이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문학의 소통은 상호침투와 충돌의 장 속에서 이질성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여, 탈북자 문제의 문학적 형상화는 향후 전개될 통일문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탈북자의 문제는 인권, 전지구적 자본주의, 분단 모순 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들은 민족 분단의 ‘희생자’인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 방치된 ‘약소자’라는 이중의 멍에를 짊어진 채 살고 있다.⁵⁾ 이에 탈북자의 삶을 다룬 문학은 근대적 일상과 분단 현실,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사적 특수성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를 다룬 텍스트는 근대 국민국가의 의미와 한계는 물론 ‘미국→한국(남한)→중국(조선족)→북한’ 순으로 서열화되는

3) 이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2002년도 정기국회자료집,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5.

4) 탈북자 문제의 문학적 형상화는 특히 소설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윤, 「아버지 감시」, 『저기 소리 없이 한잎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1992; 김지수, 「무거운 생」, 『창작과비평』, 1996년 가을; 김남일, 「중급 베트남어 회화」, 『실천문학』, 2004년 여름;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 청동거울, 2004; 전성태, 「강을 건너는 사람들」, 『문학수첩』, 2005년 가을; 문순태, 「울타리」, 『울타리』, 이룸, 2006; 정철훈, <인간의 악보>, 민음사, 2006;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황석영의 <바리데기>, 창작과비평사, 2007;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정도상, <쫄레꽃>, 창작과비평사, 2008; 이대환, <큰돈과 큰돈>, 실천문학사, 2008; 리지명, <삶은 어디에>, 아이엘엔피, 2008.

5) 류신, 「대동강과 한강을 잇는 시적 상상력의 가교-탈북자 1호 시인 김성민의 시 세계」, 『실천문학』, 2006년 가을, 461쪽 참조.

신자유주의 담론의 허구성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탈북자 문학에 대한 주요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원균은 탈북자의 문제가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새롭게 부각된 모순형태이며, 탈냉전 이후 동북 아시아의 역학구도와 관련된 국지적 모순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표’라는 전제 아래, 박덕규와 김정현의 소설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극복이라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분단문학이 냉전적 대립과 휴머니즘적 화해라는 이원적 구도를 탈피하여 국제적인 모순으로 등장한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목을 요한다.⁶⁾

한수영은 ‘탈북자’는 ‘인권’과 ‘지구적 자본주의’ 각각에 맞물리는 중층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남북한의 ‘분단모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해결은 민족적인 동시에 국제적인 지평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몇몇 단편과 자전적 수기를 분석하고 있다. 탈북자를 사회적 약자로 환기시키는 단계에서, 그들을 통해 남한과 자본주의 질서를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주체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외적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⁷⁾

고인환은 이산의 고통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는 이방인 문학(디아스포라 문학)의 하위 범주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우리 소설이 탈북자의 삶을 포착하는 방식을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위무하기 →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되돌아보기 혹은 자본의 논리에 소외된 자로서의 희미한 소통과 연대의 끈 확인하기 →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우리/그들의 경계 허물기’의 과정으로 살펴보고 있다.⁸⁾

6) 한원균, 「탈북자 문제의 소설사회학」, 『비판과 성찰의 글쓰기』, 청동거울, 2005, 41-42쪽 참조.

7) 한수영,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분단체제의 극복과 탈북자 문제의 소설화」, 『작가와 사회』, 2006년 겨울, 51-69쪽 참조.

8) 고인환, 「이방인 문학의 흐름과 방향성-이주 노동자와 탈북자의 삶을 다룬 작품

이상의 연구들은 탈북자 문제가 우리의 분단 현실과 지구적 자본주의가 야기한 국제적 모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이를 남북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물론 탈북자 문학을 분단 문학의 연장선에서 성찰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탈북자 문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국경을 사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가 북의 국경, 즉 탈북자들이 넘어야 하는 국경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그 탈북을 바라보기 위해 넘어야 하는 남과 북의 경계(국경), 즉 분단의 경계이다.⁹⁾ 이는 탈북자 문학이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점과 근대적 일상과 분단 현실,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사적 특수성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최근 우리 문학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된 ‘탈국경의 상상력’¹⁰⁾과 관련하여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

을 중심으로, 『문학들』, 2008년 가을;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그들, 『내일을 여는 작가』, 2006년 겨울 참조.

9) 서영인, 「월경(越境)의 발목, 『문학수첩』, 2007년 여름, 42쪽 참조.
10)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단일한 민족·국가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탈국경’의 의미를 심문하는 문학적 경향을 ‘탈국경의 상상력’이라 지칭할 수 있다. 탈국경의 상상력을 통해 한국의 작가들은 그동안 한반도 혹은 그 남쪽에 국한되었던 작품의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고, 한국의 근대를 형성한 모더니티의 문제를 글로벌한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되었다(박성창, 「문학·국경·세계화, 『세계의 문학』, 2008년 봄, 324쪽 참조). 일반적으로 ‘탈국경의 상상력’은 국민국가적 경계를 심문하는 탈근대적 주체의 유목과 근대적 주체의 고난의 여정으로 드러난다. 탈국경의 상상력은 국가의 바깥을 탐색하는 작업인 동시에 국가의 내부를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경제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메커니즘은 서구와 비서구, 중심과 주변 그 어디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작동된다. 자본의 바깥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본의 바깥으로 탈주를 감행하는 경우나 그것의 불가능성을 앵무새마냥 반복하는 논리는 현실대응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근대주의적 전망 아래서 획득된 보편적 가치를 그것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더 확대시켜 탈근대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재구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이명원, 「마음의 국경 : 연대는 불가능한가-탈국경 서사 비평의 현재성, 『문학수첩』, 2007년 여름, 40쪽 참조).

로운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상상력은 민족과 민중이라는 내셔널한 경계 안에 얽매어 있던 1980년대적 감수성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비와 상품이라는 거대한 유혹의 체계 내에서 문화적 탈경계가 실현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이들의 상상력이 영토성을 유지한 채 서구적 취향의 향유와 내면화를 통한 즉자적 경계 넘기를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던 데 비한다면, 현재 한국 문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경계의 관심은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표출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¹¹⁾

경쟁을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사회의 양극화는 극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자본의 장악력은 상상을 초월한 힘으로 일상 곳곳을 침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본의 논리와 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의 문제는 문학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¹²⁾ 2000년대의 우리 문학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탈국가적이고 탈근대적 상상력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연관관계 속에서 제기되었다.

바야흐로, 한국이 축적한 역사적 시공간의 문제를 외부의 기억과 흔적에 투사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에서 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를 거쳐 전지구적 자본주의 문제에 이르는 근대 사회 전반의 역사를 문제 삼는 의욕적인 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에는 하나로 묶일 수 없는 개인들의 다양한 체험과 서로 다른 특정한 개인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 놓임으로써 구성하는 어떤 공통의 체험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¹³⁾ 이 둘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본래 적이나 복원에의 환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하위 주체적 떠

11) 김예림, 「'경계'를 넘는 문학적 시선들」, 『문학 풍경, 문화 환경』, 문학과지성사, 2007, 93-95쪽 참조.

12) 이경수, 「국경을 횡단하는 상상력」, 『작가와 비평』6호, 여름언덕, 2007, 1, 56쪽 참조.

13) 김예림, 앞의 책, 103-104쪽 참조.

똥의 특수한 역사성을 만인의 체험으로 이완시키지 않는,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에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강영숙의 <리나>에 나타난 탈북자 문학의 새로운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탈북자의 삶을 다루면서 이를 남북의 문제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관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주로 이들의 최종 목적지로 ‘남한’을 상정하였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는 것이 작품의 지향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동일성에 기반한 흡수의 논리에 빠질 수 있는데, 탈북자 문제의 형상화가 남과 북의 특수성에 바탕한 분단 소설의 영역으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본론

1. 탈북 디아스포라의 국제적 연대-황석영의 <바리데기>

황석영은 <바리데기>¹⁴⁾를 두고 <손님>, <심청, 연꽃의 길>과 더불어 ‘우리네 형식과 서사에 현재의 세계가 마주친 현실’을 담아낸 작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신과 한반도의 현재의 삶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것이 작가가 국경이나 국적 따위에 구애받지 않는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진술에는 탈북 소녀 ‘바리’의 ‘이동’을 통해, 문화·종교·민족 등을 넘어선 ‘다원적 조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아심 찬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사실 바리라는 버림받은 한 아이가 조국을 떠나 영국에서 성인으로

14) 황석영, <바리데기>, 창작과비평사, 2007, 이하 쪽수만 표기.

15) 황석영, 「분쟁과 대립을 넘어 21세기의 생명수를 찾아서」, <바리데기>, 창작과비평사, 2007, 295-298쪽 참조.

우뚝 서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바리데기>의 줄거리는 의견상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공주의 삶의 패턴과 병행하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가 환기하는 맥락은 훨씬 폭이 넓다. 그것은 바리의 힘겨운 여정이, 구소련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 및 그로 인한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 그리고 9.11 사태와 런던 시가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및 인종주의의 갈등으로 인한 이라크전쟁 발발에 이르는 숨 가쁜 국제정세와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¹⁶⁾

작가는 바리의 북한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기에는 분단 현실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세계의 문제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투사되어 있다. 전통 서사 양식의 차용 또한 특수와 보편, 한반도와 그 너머를 매개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 이 작품에서 바리설화는 우리의 전통적 정서와 인류 보편적 정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바리설화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무가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변부 문화와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난과 시련을 거친 영웅이 오염된 세상을 구원한다는 바리설화의 원형적 구조’는 우리의 전통 양식을 인류의 보편적 서사로 확장시키는 요소의 하나이다.

이에 작품의 전반부(1장-4장)에 해당하는 바리의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여정은 ‘한반도의 현재의 삶’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표상하는 주춧돌에 해당한다. 바리 설화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전통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감자 찌먹고 밥해 먹고 먼데서 부엉이나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밤에 나는 할머니에게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어느결에 청진의 그 언덕바지에 있던 마당 너른 집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리고 지금 저 건넌방에서 언니들이

16) 김경수, 「작가의 욕망과 소설의 괴리-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한 한 생각」, 『황해문화』, 2006년 겨울, 416쪽 참조.

실뜨기나 손뽠치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부엌에서는 금방이라도 어머니가 솥에서 찌낸 곱장떡이나 부풀린 술빵을 소쿠리에 담아 내밀며 ‘이거 들여다 먹으라’고 밝게 고향치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다. 언니들의 화들짝 웃는 소리와 쿵광거리며 뒷마루로 몰려 나오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야야, 너 듣고 있덴?

아니…… 저 할머니 바리공주가 날굽채 딸이란 데까지 들었대서.(78쪽)

바리설화가 환기하는 이러한 전통적(토속적) 정서는 현재의 비참한 상황과 대비되며 구원자로서의 바리의 캐릭터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데 기여한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바리 이야기는 바리의 내면에 선명한 이미지로 각인된다. 할머니가 죽은 후 바리는 중국에 임시 터전을 마련하기 전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러 북한을 방문한다. 이 여정에서 기근과 굶주림으로 희생된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만난다.

부령까지 가면서 나는 밤마다 들판과 마을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헛것들과 부딪쳤다. 그들이 휘적이며 빈 마을길을 스쳐지나갈 적마다 등치 큰 나무들 사이로 무거운 바람이 지나가듯 우우웅웅하는 나직하고 음산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나중에 다른 세상으로 가서 수많은 도시들과 찬란한 불빛들과 넘쳐나는 사람들의 활기를 보면서 이들 모두가 우리를 버렸고 모른 척했다는 섭섭하고 패씸한 생각이 들었다.(93쪽)

바리는 자신의 신통력을 통해 죽은 자들의 혼을 만나지만 이들의 한을 해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인용문에서 “나중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고 모른 척했다는 섭섭하고 패씸한 생각이 들었다”는 대목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이다. 바리 설화와 바리의 초월적 능력은 당시의 현실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는 바리의 탄생과 성장을 중심으로 북의 현실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바리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현실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바리는

자신의 기억과 몸속에 억압적 현실의 흔적을 새기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어렵פות이 자각해갈 따름이다.

즉, 분단체제가 초래한 비극성에 집중된 바리의 북한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현실적 리얼리티에 장악되어 있는 셈인데, 작가는 북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 양식을 통해 우리의 현실(북한의 비참한 삶과 탈북의 문제)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바 크다. 바리설화가 작품의 서사구조를 장악하고 있지만 작중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북한→중국→영국’으로 이어지는 바리의 여정 중 출발점이 지닌 의미, 즉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장 고통 받는 공간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¹⁷⁾ 바리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여, 중심과 주변을 동시에 구원하려는 작가의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리가 중국으로 건너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바리설화의 차용 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바리의 난민적 상황이 국제화되면서 작가의 관심도 한반도에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삶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¹⁸⁾ 중국에서는 바리의 신비한 능력, 즉 발맞사지 손님의 건강 상태나 그들의 과거를 투시하는 초월적 능력 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나아가 이러한 능력 자체가 구체적인 삶의 서사를 규제하기

17) 바리가 근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제3세계 여성으로 설정된 점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18) 중국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 5장은, 전체 분량의 10%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중국은 우리(북한)/그들(영국), 특수/보편, 즉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경유지의 역할을 한다. 이 매개의 고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바리테기>의 문학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바리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 즉 ‘상 언니’와 ‘쩌우 형부’를 따라 ‘따론편(大連)’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사기를 당해 영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설정에는 우연성까지 개입한다.

시작한다. 여기에서 바리설화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나아간다. 현실의 리얼리티는 서사의 배면으로 가라앉고 작가의 의지가 전면부에 부각된다. 이를테면 바리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먼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흘러가게 된 것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내 이름 탓인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저 고적한 움집에서 밤마다 내게 바리공주 얘기를 해주었는데 해가 저무는 서천으로 생명수를 찾으러 떠난다는 줄거리가 배를 타고서야 뒤늦게 생각이 났다.(116쪽)

인용문에서는 바리설화의 아우라가 작중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리의神通한 능력이 부각되면서 바리설화의 초월적 성격이 서서히 작품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설화의 환상성이 현실의 리얼리티를 압도하는 형국이다. 영국행 배안에서의 장면을 환상성을 동원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이다. 바리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몸과 정신의 분리/재구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작가는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바리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 또한 환상적으로 처리했다. 할머니는 바리의 꿈에 나타나 “서천의 끝”으로 안내한다. 바리는 불바다, 피바다, 모래바다(인간이 세상에 지어 놓은 지옥)를 건너 서천의 끝(무쇠성)으로 향한다. 바리가 거쳐 온 지옥 같은 현실(디스토피아)이 재현되며 고통 받는 영혼들이 앞다투어 바리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한반도 북쪽에서 이주해온 탈북소녀 바리가 세계신으로 우뚝 서는 장면이다.

주지하듯, 바리의 영국에서의 삶은 중국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리’의 초월적 능력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변부 하층민들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산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탈북자로서의 바리의 삶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압둘 할아버지와 나는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전보다 더 자주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가 내게 해준 얘기들은 가족과 조상들에 대한 얘기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알라신에 대하여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일화들이었다. 나는 꾸란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를테면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롤라’ 하는 고백기도의 첫 구절은 저절로 외우게 되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하늘님이 계시다는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들었다면 또 미신이라고 욕박질렀을 테지만, 할머니가 말해주던 그분이나 압둘 할아버지가 말한 이분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난이나 차파티를 먹고 우리는 쌀밥을 먹는 차이가 있다고나 할까.(224-225쪽)

압둘 할아버지를 매개로 할머니가 들려준 바리설화는 구체적 일상으로 내려온다. 나아가 이산과 해체의 경험을 공유한 주변부 디아스포라의 삶과 만난다. 하지만 디아스포라들의 구체적 현실을 수난자의 공통 체험으로 흡수·수렴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기계적 조합의 성격이 짙은 것 또한 사실이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알라신”과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하늘님”이 별다른 매개 없이 한몸이 되기 때문이다. 살아온 방식이 다른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 이를테면 불교, 도교, 기독교 등이 “우주의 섭리”라는 무소불위의 최종심급으로 수렴된다. 이주자들의 특수한 역사성은 ‘동정과 연민’이라는 동일성 담론(바리설화)으로 흡수되는 셈이다. 이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관점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논의를 소개하면,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구원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가 현실세계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를 불러왔다’는 지적¹⁹⁾, ‘수십억 개의 욕망이 피비린내 나게 부딪치는 세계에서 모두를 포용하고 화해할 수 있는 휴머니즘은 존재하지 않는 탈출구’라는 관점²⁰⁾, ‘타자들

19) 김경수, 앞의 글, 418쪽 참조.

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수렴적 제의'라는 지적²¹⁾, '제3세계 민중과의 연대에 기초한 환상적 초월'에 머물고 있다는 관점²²⁾, '작위적으로 서사를 바리공주에 열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용'시키고 있다는 점²³⁾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에서 전지구적 사건과 현안들에 연루된 '세계적 하위주체'가 탄생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작품은 한국어로 서술된 한국 작품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 국제이주, 탈북, 9.11테러, 런던 테러 등 세계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 지구적 이슈와 사건을 수용하면서 세계문학으로 나아갈 내적 동력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황석영은 <바리데기>를 통해 비서구/서구, 피식민/식민, 이슬람(주변부의 삶)/기독교(서구중심주의) 사이의 갈등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남을 위한 눈물/생명수)으로 중재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디스토피아적 현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주변부 디아스포라들의 연대를 통해 탐색하고 있음을 반영한다.²⁵⁾

이상에서 <바리데기>는 분단 모순이 내재된 한반도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이를 주변부 디아스포라들의 국제적 연대의 문제로 확장하는 데는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에 머무르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의 전통 설화를 너무 강조한 작가의식에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삶을 형상화한 부분에

20) 권유리아, 「바리가 영국으로 간 까닭, '우리'에 대한 지극한 강박-황석영, <바리데기>, 『내일을 여는 작가』, 2007년 겨울, 247-248 참조.

21) 김형중, 「국경을 넘는 세 척의 배」, 『문학들』, 2007년 겨울, 61-76쪽 참조.

22) 박성창, 앞의 글, 334-336쪽 참조.

23) 권성우, 「서사의 창조적 갱신과 리얼리즘의 퇴행 사이-황석영의 <바리데기>론」, 『한민족문화연구』제2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2, 241-243 참조.

24)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 77-84쪽 참조.

25) 고인환,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전통 양식 전용 양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제2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8, 194쪽 참조.

서 바리설화의 이미지는 피억압 디아스포라의 연대에 최종 심급으로 기능하고 있다. 피억압 민중의 연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에 소외된 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들의 다층적 정체성을 포착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리를 포함한 다양한 하위주체들이 개별 국가와 민족 나아가 그들의 고유문화를 실체화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조화와 화합의 연대를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에 해당한다. 바리와 알리가 런던 지하철 테러를 목격한 후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은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으로 전개될 영국에서의 지난한 삶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말은 ‘새로운 차이의 연대’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한국문학의 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2. 탈북 디아스포라의 다층적 정체성-강영숙의 <리나>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근대적 수난자의 공통 체험을 바리설화라는 상징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탈북 디아스포라의 국제적 연대를 다루고 있다면, 강영숙의 <리나>는 이러한 근대적 주체들의 연대를 심문하며 하나로 수렴될 수 없는 탈근대적 주체의 다층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리나>²⁶⁾는 탈북 소녀 리나의, ‘국경→화공약품제조 공장→마약과 관광의 도시→창녀촌 시렁→경제자유지역공단지대→국경’으로 이어지는 고난에 찬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국경을 넘는 한 탈북 소녀의 희망과 기대에 찬 내면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밤마다 국경을 꿈꾼다.

그녀에게 국경은 두려움(공포)과 기대(희망)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탈출하다 잡힌 남자애들은 타국으로 팔려가 꼬박 서른여섯 시간씩 낮밤

26)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이하 쪽수만 표기.

없이 일하고, 여자애들은 매춘 지역들을 뱅글뱅글 돌다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되어야 풀어준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리나는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혼란에 빠진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손”의 “마술”이 국경을 “활짝 열” 거라고 믿고 있으며, 절박한 탈북의 상황을 “탄광촌의 비좁은 집에서 평생 사는 것”과 “창녀가 되더라도 외국물을 먹어보고 사는 것” 사이의 선택의 문제로 인식한다. 탈북자들의 비참한 삶은 “꿈” “소문”의 형태로 제시되며, 이를 받아들이는 리나의 태도 또한 구체적 현실과 거리감을 가진다.²⁷⁾

이렇듯, ‘특정 국가를 벗어났으며 다른 국민국가에 편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틈’²⁸⁾, 즉 국경이 <리나>를 감싸고 있는 무대이다. 처음 스물두 명의 탈출자들과 함께 국경을 넘던 바로 그 순간이 리나의 출발점이고, 리나의 의식이 되풀이해 돌아가는 원점이며, 리나가 기어이 다시 돌아가는 목적지이자, 소설이 끝난 후에도 리나의 행로를 완결짓지 않게 하는 열린 거점이다. 실로 리나는 국경 위에 있다.²⁹⁾

여기에서 국경은 국민국가의 영역을 초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탈주해야만 하는 탈근대적 주체의 모순된 운명을 표상한다.³⁰⁾ 정주하지 않고 끝없이 국경을 넘고자 하는 리나의 자발적 유목이라는 선택은 국가에 대립하는 진정한 방법이지만, 뒤집어 보면 국가로부터 추방되어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방식이기도 하다.³¹⁾ <리나>는 국민국가의 안과 밖 사이의 경계에서 아슬

27) 리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꿈, 소문, 마술, 운명 등은 현실의 리얼리티를 일탈하는 포스트모던 서사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8) 손정수, 「디아스포라에 의한, 디아스포라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글쓰기」, 『문학들』, 2006년 가을, 49쪽.

29) 차미령, 「국경의 바깥-전성태와 강영숙의 근작들」, 『문예중앙』, 2006년 여름, 39쪽 참조.

30) 이러한 국경 탈주의 모험이 반복되어 실체화되었을 때 또 다른 관습적 상징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모험을 위한 모험,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 해체를 위한 해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1) 정혜경, 「여성수난사 이야기와 탈(脫)국경의 상상력」, 『문학수첩』, 2007년 여름,

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듯, <리나>는 탈북자의 삶을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가두지 않고 디아스포라 일반의 삶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³²⁾ 이들은 “안전한 데”가 없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인 존재들이다.

리나가 떠도는 도시 또한 이들의 처지와 비슷하게 그려진다. 리나의 눈에 비친 대륙의 도시는 “회색의 공기 위에 등등 떠 있”으며, “젓빛 유리상자 속에 든 모형도시”와 같다. 작가가 구체적 형상을 지우고 흐릿하

70쪽 참조.

32) 이러한 의도는 주인공의 이름 ‘리나(俐娜)’와 탈출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P국’의 지명에도 잘 드러난다. 이 작품은 자신의 출생지를 자꾸만 부인하려고 한다. 탈북 난민의 실상이 이 작품의 본적이지만 이 작품은 그 본적을 가능한 한 흐릿하게 지우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리나’에서는 모국어의 뉘앙스를 찾기 어렵다. 작가는 ‘리나’가 ‘俐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명명은 ‘Rina’의 뉘앙스를 지우기보다는 오히려 이 소녀를 ‘俐娜’와 ‘Rina’ 사이에서 덜컹거리게 만든다. 그 때문에 이 이름은 하나의 국가에 정착하지 못한다. 이 이름 자체가 난민이다. ‘P국’ 또한 남한을 가리키지만, 알파벳 P에서 남한과 관련된 어떤 것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이 ‘P국’은 ‘彼國’이 아닌가. ‘이 나라’가 아닌 ‘저 나라’일 뿐이다(신형철, 『만유인력의 소설학』, 『물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31쪽 참조). 신형철은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미학적인 욕망’의 발현으로 본다. <리나>는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문법이라는 ‘한 개의 달’이 떠 있는 소설이지만, 그 문법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어떤 미학적 기질이 ‘다른 한 개’의 달로 떠 있는 소설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해령은 리나의 월경이 P국에 이르는 국경을 넘지 않는다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작가는 P국을 대한민국으로 명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국가 단위로 편제된 지정학적 클리셰에 안주하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P국의 국경만은 경험되지 않은, 경험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남겨둠으로써 역설적으로 P국의 실체성을 강하게 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국은 역설적으로 부재의 현존이라는 방식으로 리나의 내면성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해령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또는 반중심부로 진출한 한국의 위치와, 이러한 한국의 내셔널리티에 관한 작가의 반성적 응답의 형식을 읽어낸다(이해령, 『국경과 내면성-강영숙의 장편소설 <리나>에 대하여』, 『문예중앙』, 2006년 가을, 249쪽 참조). 이렇게 작가는 P국을 타자화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P국은 리나의 여정과 의식을 규정하는 주요한 계기로 기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게 제시하고 있는 제3국의 도시는 세계적 차원의 노동 분업의 구조로 형성된 저개발의 동아시아 지역이다. 이 지역의 산업들은 제1세계로부터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가—특히,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된 대표적인 산업들이며, 현재는 자본주의적 개방에 불을 댕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 공장들이 위치한 곳은 중심부의 도시가 아닌 사막지대나 국경에 인접한 주변인 것이다.³³⁾ 이 저개발의 동아시아 지역이 리나의 공간적 배경이며,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허상을 비유적으로 폭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채찍 하나로 50여 명의 노동자를 다스리는 화공약품제조공장, “눈이 파랗고 비현실적으로 키가 크거나 몸이 큰 관광객”과 “수많은 거지”들이 공존하는 “마약과 관광의 도시”(풍요의 도시), 근대 초기의 살인적 노동, 인간에 의해 타자화된 자연의 풍광, 소비와 향락을 추구하는 욕망 등이 뒤얽힌 “창녀촌 시렁”,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별대우를 받는 경제자유구역 공단지대 등은 전근대적인 노동착취, 매춘과 마약, 향락과 소비가 범람하는 물질적 풍요의 허상, 다국적 기업의 억압적 시스템이 뒤얽힌 전지구화된 자본의 디스토피아이다. 전근대/근대/탈근대의 성격이 혼종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을 표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작가는 구체적 실체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는 공간을 떠도는 리나의 여정을, 시작과 끝이 없는 비선형적 순환구조의 서사를 통해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 밖으로 탈주하려는 리나의 욕망과 이의 불가능성을 동시에 포착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하지만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다층적 정체성은 쉽게 포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³⁴⁾

33) 이해령, 앞의 글, 238-239 참조.

34) 작가는 이러한 리나의 불투명한 정체성을 포착하기 위해 특이한 시점을 구현한다. 이 작품의 시점은 삼인칭이라기보다는 ‘무인칭 혹은 비인칭’에 가까우며, 화자는 리나이기도 하면서 리나를 넘어선 어떤 존재, 리나를 휘어잡지도 리나에 포섭되지도 않는 시점을 구성한다. 이 소설은 철저히 리나의 이야기이지만 리나

리나는 이러한 지난한 여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물을 만나며 관계를 맺는다. 먼저 근대적인 민족·국가 공동체의 경계 안에서 모색되는 소통과 연대의 양상을 고찰하기로 하자. 첫째, 노동의 소외에 맞선 다국적 시위대의 저항 양상이다.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몸에 불이 붙어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한다. 죽은 사람들의 친구들은 독극물 탱크를 끌어안고 시위를 벌인다. 공단 측에서는 재빨리 경찰을 불러 그들을 감옥에 수감한다. 감옥에 간 사람들의 친구들이 모여 시위를 하기 시작한다. 관리자들의 반응이 없자 노동자들은 시위 장소를 “50미터 높이의 옥탑 가스 분리탑 꼭대기”로 바꾼다. 아무도 옥탑 위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헬리콥터가 날아 “기운이 빠진 노동자들”을 “집계에 하나씩 매달”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이렇게 시위는 끝난다.

둘째, “지속발전위원회”로 대변되는 모임이다. 제3세계의 빈곤과 열악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호단체나 세계기구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리나는 클럽 주인오빠와 종업원 미사를 따라 모임에 참석한다.

사람들은 대마초를 피우면서 전 세계의 빈곤과 끊이지 않는 전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토론했다. 실제로 그중 한 명은 유엔인지, 유엔 산하인지 무슨 국제기구에 속해 있는 민간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나라처럼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대책인 나라는 지구상에 다신 없을 겁니다.” 대화는 한참씩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환경 부담금도 안 내는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또렷한 발음으로 한 말은 여기까지가 다였고, 그 이후로는 말소리보다 신음이나 가래침 뱉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226쪽)

만의 이야기로 귀속되지 않는 특이한 문체를 실현한다(정여울, 「국경의 다면체들 : <북간도>에서 리나까지-한국소설의 국경은 어디까지 상상되었는가」 『문학동네』, 2006년 겨울, 463 참조). ‘모두이면서 그 누구도 아닌’ 존재인 리나는 디아스포라의 역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드러내지 않는’ 탈주체적 캐릭터라 할 수 있다.

리나는 “그날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의 평생 회원”이 되었다. 이들과 일하며 리나는 “매일 팔려만 다니던 주제에 돈 주고 사람을 사는 일당 중의 한 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 입술을 물”게 된다. 공단 폭발 이후, 희생자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한 환경운동가들이나 예술가들 또한 “지속발전위원회”의 회원들과 닮아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일류답게, 운동도 신념도 장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논리에 충실”했으며, 예술가들이 준비한 퍼포먼스는 피해자들을 위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잔치였으며, 이들이 떠나고 나서야 진정한 퍼포먼스가 시작된다.

셋째, 리나와 미싸 등 클럽 종업원들 사이의 연대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팔려가는 여성들의 비참한 삶’이라는 조건이 이들을 연결하는 끈이다. 리나는 이러한 여자들의 연대를 통해 클럽 오빠 및 똥보와 결별한다. 같은 나라에서 온 후배를 똥보가 겁탈하려는 순간, 리나는 함께 올라간 퍼즐 오빠의 뒤통수를 병으로 갈긴다. 그 사이 허둥대던 똥보를 누워 있던 리나의 후배가 일어나 장식용 향아리로 머리통을 갈긴다. 미싸 또한 현관 앞에 있던 점박이(인도 여자애)에 의해 희생된다. 퍼즐은 여자들의 천국이 되었고 이제 공단지대를 벗어나 다른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리나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국적 노동자들의 시위는 실패했다. 다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 ‘노동의 종말’을 절망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그리고 “지속발전위원회”의 모습 또한 허위적이다. 자본의 논리에 오염되어 ‘그들만의 잔치’가 된 운동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남성들에 대한 테러로 구축된 소외받은 여성들의 연대 또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이들 또한 돈이 지닌 무소불위의 자장 속에 있다는 점(“이제는 돈만 벌면 돼. 돈을 벌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기만 하면 다 잊을 수 있어”)에서 디스토피아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상은 무국적 자본의 논리에 포획된 연대라 할 수 있는데, 근대 국민

국가의 한계를 심문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더 이상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국민국가적 상상력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주체의 유목이 요구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이다. 작가는 혈연, 국적, 인종, 성차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를 모색한다.

리나가 북의 가족과 결별하는 장면을 고찰해보자. 리나는 탈북자를 돕기 위해 파견된 P국 선교사들을 만나 P국으로 가기 위해 탈출한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는 곳으로 간다. 여기에서 헤어질 가족을 발견한다.

그때 리나는 보았다. 커다란 교회 건물 기둥을 뒤로하고 흰 벽에 기대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 세 사람, 아버지와 엄마와 남동생이었다. 리나는 아주 잠깐 혀가 뻗뻗하게 굳어 입 밖으로 말을 내뱉지 못하다가 들릴락 말락 하게 중얼거렸다. “여전히 사이들이 좋으시군.” 그리고 리나는 두 손을 깎지 낀 채 눈을 내리깔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리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리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성격도 몹시 안 좋아서 고분고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85쪽)

리나는 가족의 곁으로 가지 않고 ‘빠’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온다. 리나가 가족을 떠나는 이유는, 비록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혈연/지연)로 개개인의 개성(성격)을 가두는 근대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리나가 근대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장면이다.

도시에서 떠돌던 리나는 프로듀서 김과 선교사 장을 만난다. 이들은 리나를 속여 돈을 갈취한다. 이들의 삶을 통해 리나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항상 리나를 주시하고 몸값을 담보로 시비를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민족·국가라는 테두리를 넘어 작동되는 무국적 자본의 논리를 표상한다. 리나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허울로 맺어진 이들과의 관계도 단호하게 거절한다.

리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동체는 이러한 근대적 가족과 국가(민족), 나아가 자본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서 형성된다. 리나는 국적불명의 나라와 도시들을 가수로, 노동자로, 여급으로 유랑하면서 만난 이들과 가족을 이룬다. 그중 ‘빠’는 남자다. 이국청년 빠는 처음엔 리나에게 동생이었다가, 연인이었다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 동료이 되기도 한다. 함께 탈출한 방직공장 언니도 가족의 성원이 되는데, 그녀와 리나는 동료이자 자매이자 동성애 연인이다. 잉태와 양육의 경험이 없는 늙은 이국 가수 할머니도 리나와 한가족을 이룬다. 성과 양육과 생계를 공유하고 한 주거공간에 사는 이들은 분명 가족임에 틀림없다. 국적과 성차나 나이와 장애는 이들이 가족으로서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하등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 가족 내에 이방인은 없다. 비정상도 없다.³⁵⁾ 뚜렷한 전망이나 대안도 없이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지만, 자본의 논리와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리나는 ‘이성애자/단일민족/가족주의’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리얼리티를 배반하면서도 이와 대척되는 지점에 또다른 리얼리티 만들기를 거부한다. 리나는 자국민에게 애착을 느끼면서도 초국적이다. 물론 가족을 거부하면서도 할머니나 봉제공장 언니, 빠와 가족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³⁶⁾

특히, 할머니와의 관계는 주목을 요한다. 할머니와 리나는 “수백 년 전 먼 서양의 해양 국가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던 시절부터 이곳 사람들의 피부 속에 침전된 멜로디”(“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어제의 일처럼 지금 이 순간에 되살아나는 가슴속에 묻어둔 사랑”)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은밀하게 배운 랩, 줄넘기나 고무줄놀이를 할 때 아이들과 부르는 노래, 국경을 넘은 자신의 이야기를 변형한 가사”로 연결되어 있다. 이

35) 김형중, 「성(性)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최근 한국문학에 나타난 성·사랑·가족에 대한 단상들」,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 259쪽 참조.

36) 심진경, 「새로운 거짓말과 진부한 거짓말」, 『실천문학』, 2008년 겨울, 158쪽 참조.

들이 살아온 삶(역사) 자체가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을 상대화하며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의 삶(그들의 역사)이 녹아 있는 사랑 노래는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리나는 할머니가 그렇게 했듯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노래로 변형해 할머니의 뒤를 이어 가수로 나선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 공동체의 형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시령의 철거와 공단 폭발이 대안가족을 해체시키는 직접적인 이유로 드러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국적의 자본의 논리가 휘두르는 폭력이다. <리나>가 모색한 연대의 상상력도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국민국가의 안과 밖을 동시에 심문하는 작업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³⁷⁾ 리나의 모험은 국민국가의 배타적 영역을 심문한다. 하지만, 리나의 현실적 삶이 국민국가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은 국민국가의 모순을 비판하는 동시에 근대의 메커니즘을 꺼안아야 하는 모순된 운명을 지닌다. 다시 국경 앞에 선 리나의 모습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적 영역을 넘나들며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37) 근대와 탈근대의 경계에 서 있는 <리나>는 다음의 딜레마를 견뎌야 한다. 기원 없는 서사, 환원되지 않는 의미,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으로 뭉쳐진 <리나>의 서사는 그야말로 반성과 성찰의 힘을 가진 근대적 주체와 그에 의한 서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포스트모던 서사시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리나의 복수적이고 다면적인 정체성은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사건에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오히려 숨막히는 동일성이다(서영인, 앞의 글, 51-53쪽 참조). 내면 없는 <리나>의 서사가 수많은 이질적 타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자족적으로 닫혀 있는 동일성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끝없이 다음 국경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국경과 국경 사이, 혹은 국경 그 자체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동요를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강영숙의 <리나>와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을,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바리데기>는 한국의 전통 서사(바리 설화)를 차용하여 이를 세계의 신화로 확장하고 있다. '북한→중국→영국'이라는 공간의 이동 경로는 한국의 역사(분단현실)와 인류의 역사(근대사회의 형성과 발전과정)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데, 작가는 바리라는 초역사적 존재를 통해 근대 이전과 근대, 그리고 근대 이후를 매개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응하는 피억압 민중(디아스포라)의 연대는 한국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리나>는 한반도라는 국민국가의 영역을 넘어, '국가 그 자체의 운동으로서의 국경'³⁸⁾을 심문하는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을 선보이고 있다. 국경을 떠도는 리나의 여정은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다층적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 서사의 동일담 담론 너머를 탐색하는 포스트모던 서사의 특징을 표상한다. <리나>는 근대적 주체의 자기모색과 탈근대적 주체의 유목 사이에 존재하는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이 다다른 자리를 보여주는 한 징후라 할 수 있다. '단일성, 통일성, 동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저항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국민국가에 감금된 형상'으로서의 수난자(민중) 이미지를 해체하고 있다는 점³⁹⁾ 또한 이 작품의 성취이다. 리나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논리가 구축해 놓은 국가와 민중의 경계를 허물고 탈주하는 새로운 주체라 할 만하다.

탈북자로 설정된 바리와 리나의 이동 경로는 분단현실이 매개된 한반

38) 황호덕, 「넘는 것이 아니다-국경과 문학」, 『문학동네』, 2006년 겨울, 423쪽.

39) 이종호, 「트랜스-내셔널의 감각과 형상들」,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 갈무리, 2007, 192-195 참조.

도에서 근대 사회의 형성과정이 함축된 한반도 너머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탈북 디아스포라들의 국제적 연대와 다층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리데기>는 근대 이전의 전통 서사 양식의 차용을 통해 특수와 보편, 한반도와 그 너머, 근대와 탈근대를 매개하는 관계의 사유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리나>는 탈근대적 서사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국경의 상상력’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 서사 양식과 탈근대적 성향의 서사는 ‘전지구적 자본의 이동과 편제’에 응전하는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구조화하는 주요한 형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바리데기>는 하위주체들이 구성하는 공통의 체험을, <리나>는 하나로 수렴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들의 다층적 정체성을 포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은 근대적 주체의 고난의 여정과 탈근대적 주체의 유목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의 안과 밖을 동시에 심문한다. 부정적 근대와 맞선 근대주의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이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인 셈이다. <바리데기>는 피억압 디아스포라들의 구체적 삶을 ‘동정과 연민’(남을 위한 눈물 혹은 생명수)이라는 근대의 동일성 담론(바리설화)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가치를 모색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리나>에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탈주하려는 탈근대적 주체의 욕망이 전경화됨으로써, 부정적 근대에 맞선 근대적 가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바리데기>에는 근대적 주체의 정체성을 심문하는 탈근대적 ‘차이의 연대’가, <리나>에는 탈북 디아스포라의 유목적 모험을 근대적 일상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필자는 탈북자 문학이 분단 문학의 경계를 심문하는 세계 문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 문제 형상화가 민족 분단의 특수성은 물론 근대 국민국가의 폭력성에 희생되는 소수자들의 이

주와 해체의 문제, 나아가 이들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바리데기>와 <리나>는 이 과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는 근대적 주체의 수난과 공감의 서사를 통해, 후자는 탈근대적 주체의 유목적 모험 이야기를 통해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 황석영, <바리데기>, 창작과비평사, 2007.
- 고봉준,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민족문학과 아시아」, 『작가와 비평』7호, 도서출판 b, 2007, 8, 32-50쪽.
- 고인환,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그들」, 『내일을 여는 작가』, 2006년 겨울, 48-69쪽.
- 고인환, 「이방인 문학의 흐름과 방향성-이주 노동자와 탈북자의 삶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들』, 2008년 가을, 30-56쪽.
- 고인환,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전통 양식 전용 양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2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8, 175-200쪽.
- 권성우, 「서사의 창조적 갱신과 리얼리즘의 퇴행 사이-황석영의 <바리데기>론」, 『한민족문화연구』 제2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2, 227-253쪽.
- 권유리아, 「바리가 영국으로 간 까닭, ‘우리’에 대한 지극한 강박-황석영, <바리데기>」, 『내일을 여는 작가』, 2007년 겨울, 242-248쪽.
- 김경수, 「작가의 욕망과 소설의 괴리-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한 한 생각」, 『황해문화』, 2006년 겨울, 415-420쪽.
- 김예림, 「‘경계’를 넘는 문학적 시선들」, 『문학 풍경, 문화 환경』, 문학과 지성사, 2007, 91-107쪽.
- 김형중, 「국경을 넘는 세 척의 배」, 『문학들』, 2007년 겨울, 60-77쪽.
- 김형중, 「성(性)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최근 한국문학에 나타난 성·사랑·가족에 대한 단상들」,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 244-260쪽.
- 류 신, 「대동강과 한강을 잇는 시적 상상력의 가교-‘탈북자 1호 시인’

- 김성민의 시세계, 『실천문학』, 2006년 가을, 459-483쪽.
- 박성창, 「문학·국경·세계화: 황석영과 강영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세계의 문학』, 2008년 봄, 317-345쪽.
- 복도훈, 「연대의 환상, 적대의 현실」, 『문학동네』, 2006년 겨울, 474-500쪽.
- 서영인, 「월경(越境)의 발목」, 『문학수첩』, 2007년 여름, 42-57쪽.
- 손정수, 「디아스포라에 의한, 디아스포라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글쓰기」, 『문학들』, 2006년 가을, 30-60쪽.
- 신형철, 「만유인력의 소설학-김영하, 강영숙, 박민규의 장편을 통해 본 '소설과 현실」,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23-43쪽.
- 심진경, 「새로운 거짓말과 진부한 거짓말」, 『실천문학』, 2006년 겨울, 146-160쪽.
-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 71-96쪽.
- 이경수, 「국경을 횡단하는 상상력」, 『작가와 비평』6호, 여름언덕, 2007, 1, 55-76쪽.
- 이명원, 「마음의 국경 : 연대는 불가능한가-탈국경 서사 비평의 현재성」, 『문학수첩』, 2007년 여름, 26-41쪽.
- 이인제, 『2002년도 정기국회자료집,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5.
- 이종호, 「트랜스-내셔널의 감각과 형상들」,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 갈무리, 2007, 191-219쪽.
- 이혜령, 「국경과 내면성」, 『문예중앙』, 2006년 가을, 233-250쪽.
- 전영평·장임숙, 「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슈확산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239-269.
- 정여울, 「'국경'의 다면체들:<북간도>에서 <리나>까지」, 『문학동네』,

2006년 겨울, 453-473쪽.

정혜경, 「여성수난사 이야기와 탈(脫)국경의 상상력」, 『문학수첩』, 2007년 여름, 58-71쪽.

차미령, 「국경의 바깥: 전성태와 강영숙의 근작들」, 『문예중앙』, 2006년 겨울, 27-46쪽.

최대석·조영주,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제33집 2호, 2008, 87-119쪽.

한수영,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분단체제의 극복과 탈북자 문제의 소설화」, 『작가와 사회』, 2006년 겨울, 49-71쪽.

한원균, 「탈북자 문제의 소설사회학」, 『비판과 성찰의 글쓰기』, 청동거울, 2005, 36-54쪽.

황석영, 「분쟁과 대립을 넘어 21세기의 생명수를 찾아서」, <바리데기>, 창비, 2007, 293-301쪽.

황호덕, 「넘는 것이 아니다-국경과 문학」, 『문학동네』, 2006년 겨울, 418-434쪽.

<Abstract>

A study on new type of North Korean
refugees formulation

- Focused on 'Border-crossing imagination' in the
<Baridegi(Origin of shaman)> and <Rina>

Ko, In-Hwan

This study consider new type of North Korean refugees' literature in the <Baridegi> and <Rina>. Those expand into worldwide issue over existing standpoint that head for 'South Korea' as goal. This standpoint fall into schema of oneness. Because North Korean refugees formulation is comprised in national division novel which based on Korea particularity. North Korean refugees' literature expands into international literature as make trial of a national division novel confines in my opinion. Hence, North Korean refugees' literature aim to new possibility of literature that include particular division further migration and deconstruct of minority groups as well as joint

This study considers a new aspect of North Korean refugees' problem that connected 'Border-crossing imagination' in Korea commonwealth of writers recently.

Bari and Rina, North Korean refugees, migrate beyond from the Korean Peninsula by division realities to the Korean Peninsula that imply making modern society. This migration shows diasporas' imagination of migration and joint. <Baridegi> shows related thought

that mediate between modern and post-modern/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Korea Peninsula and over there through traditional narrative form.

In comparison, <Rina> shows a creative 'border imagination' for making full use of postmodern narrative's feature. Traditional narrative and postmodern narrative construct diaspora's life resists 'the global movement and the maldistribution of capital'. <Baridegi> focuses on common experience of subaltern and <Rina> focuses on multi-layered identity of diasporas. The task that concerns and connects the gap between the two can be said imminent problem which literary imagination of border-crossing should solve.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s, Diaspora, Border-crossing imagination, New Liberalism, National division literature, Border, Joint, Modern, Post-Modern

■ 논문접수 : 2009년 7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8월 12일